

역사·문화 유물을 관광자원화한 도시, 베네치아

윤정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전한 관광산업 활성화, 자연환경보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차별화, 민관 협력 실천 모형, 지역 연고 기업의 적극 참여지원, 구체적인 도시성장전략 수립, 관련부서의 통합적 운영체계 및 인재육성 사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해외출장의 목적은 선진외국의 우수제도 및 정책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개발 성공사례를 통해 지역개발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9박 11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을 다녀왔으며, 그 중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수자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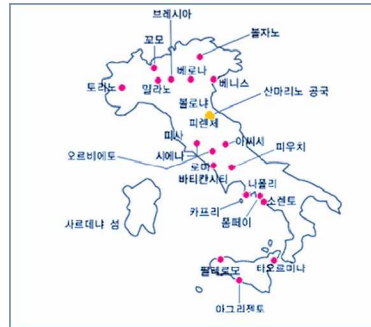
II. 이탈리아 베네치아

1. 일반 현황

이탈리아는 인구 5,814만 명, 면적 301,230km²으로, 북쪽으로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과 이웃하고, 동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발칸 반도와 지중해를 사이에 두

고 북아프리카와 마주 보고 있다. 산지가 많은 편이어서 700m 이상의 산지가 35%를 차지하며 구릉지대가 42%, 나머지 23% 정도가 평지이다.

이탈리아에서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한 베네치아는 베네토주(州)의 주도(州都)이자, 베네치아현(縣)의 주도(主都)이며, 2000년 기준으로 인구는 27만 5,368명이 살고 있다. 아드리아 바다의 인공섬으로 석호(潟湖:라군)"위에 흩어져 있는 118개의 섬들과 약 400여 개 다리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다.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 독특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해상무역의 본거지로 성장하여 7세기 말 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졌고, 10세기 말 동부 지중해 지역과의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항구도시로 발전하였다. 이탈리아의 로마, 피렌체와 더불어 중요한 관광지이고, 세계 3대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등 문화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림2〉 이탈리아 지도



〈그림3〉 베니스 지도

2. 도시 특성

1) 유기적인 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의 도시성장을 살펴보면 인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가 아니라 바다와 운하라는 자연환경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성장과 변화를 반복한 도시다. 이에 특이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로와 같은 유기적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획된 도시가 연출하는 직선적인 조망



〈그림 4〉 유기적 도시 베네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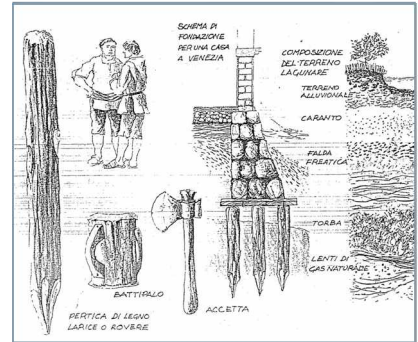
1) 사주(砂洲)로 바다와 격리된 호소(湖沼). 해류·조류·하천 등의 작용으로 운반된 토사가 바다의 일부분 폐색함으로써 바다에서 호소가 떨어져 나오거나, 해안 가까이에서 바람이 모래를 운반하여 호소와 바다를 분리함

을 발견할 수 없으며, 건축물들의 관계나 공공장소들의 질서 있는 관계도 볼 수 없다. 도로 패턴도 불규칙적이고, 도시조직 또한 복잡적이다.

2) 인공섬 건설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
 물 위에 있는 운하의 도시이기에 시가지 중심에 S자형 대운하가 관통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석호를 매립하여 인공지반을 만들고 인공섬을 건설하였기에 혈관처럼 자리 잡은 운하는 교통용도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순응하기 위해 지혜롭게 고안된 물을 통과시키기 위한 생태적 장치였다. 만약 베네치아가 운하에 의해 나뉘지 않고 전체를 매립했다면 이미 물에 잠기는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3)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는 관광도시로 성공한 도시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생활에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없었으나, 베네치아가 성공한 이유는 독창적인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방문객들은 도시의 독특한 환경에 강한 인상을 받는 동시에 강한 장소성에 매료되고 있다. 수로를 통한 수상택시(본토와 베니스)와 곤돌라(베니스 내부)의 교통수단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인공지반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그림 6〉 곤돌라와 수중택시

4) 공공공간의 확장으로 매력적인 공간 창출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도시일 뿐 아니라 지혜롭게 건설된 도시이기도 하다. 토지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다른 도시보다 광장이 많으며, 엄청나게 밀도가 높지만 수로로 인해 공간이 개방되어 답답하지 않다.



〈그림 7〉 광장 및 수로

5) 기능과 조닝(zoning) 등 근대 계획수법 배제

베네치아가 매력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능과 조닝(zoning) 등 근대 계획수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의 각 지구에는 주거·생산·소비·여가활동 등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양상이 섞여서 자리하고 있으므로, 근대도시에서의 기능적 분화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도시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지리적으로 분리된 작은 섬들에 교구(敎區) 중심의 자립적 커뮤니티를 성립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주거와 생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동시에 마련되었다.”

6)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시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성공한 요인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노력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상하수도 정비 등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부분적 도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평균 400년이 넘는 건물의 역사성과 고유성, 문화가치의 우수성을 보존하는 노력이 뛰어난 지역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을 보수할 경우 실 사진을 촬영하여 파손시 참조하는 건물 보존에 노력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건물보수를 계획적 관리하에 실시하며, 노후화된 건물의 보수시 예술작품을 다루는 듯 건물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2) 손세관, 베네치아-동서가 공존하는 바다의 도시, 열화당, p.41



〈그림 8〉 사진촬영을 하여 건물 보수시 참조

7) 성공적인 지역 축제의 장 베네치아

베네치아의 축제는 지역 관광 상품을 국내 및 해외에 프로모션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모베네치아사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베네치아관광진흥청의 활동과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부문별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하고 컨소시엄에 소속된 회사들에 대한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상공회의소, 관광진흥청, 베네치아 시, 공적·사적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축제³⁾를 위해 베네치아 시 당국은 관광협회와 같이 식당 및 카페에 안내 책자를 발행하고, 숙박업소 협회는 축제기간동안의 행사 일정 및 지도를 담은 'Guest in Venice'를 발행하여 배포한다. 베네치아의 성공적인 축제는 특정장소가 아닌 도시전체가 무대이며, 도시민 전체가 주체가 되어 행해지고 있다.⁴⁾

8)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모세 프로젝트(Mose Project)'

베네치아는 본래 석호의 사주(砂洲)였던 곳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여, 최근 지반침하와 석호의 오염이 도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평균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연중 이백 일 이상 넘쳐, 건물의 1층에는 가구를 거의 두지 않고 생활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자원 보존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 11개 국가에서 50여 개의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현재 100개가 넘는 문화유적과 1,000점이 넘는 예술품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2003년 이탈리아 정부는 8년간 26억 달러(2조 4천억 원 이상)를 투입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11일 동안 약 396,157명이 베네치아를 방문하였다.

4) 류정아외 8인, 유럽의 축제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pp.220-222

이 계획은 78개의 관문으로 이루어진 이동식 장벽을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다가 바닷물 수위가 1.1미터 이상 올라가면 공중으로 부양되어 바닷물을 막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여 역사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현재의 베네치아를 만들었으며, 이제는 베네치아만의 노력이 아닌 이탈리아 정부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역사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⁵⁾

Ⅲ. 시사점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베네치아는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400년이 넘는 건물의 문화가치 우수성을 겸비한 지역이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적 유산보다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다른 도시의 개발 모습에 비해 차별화된 모습이다.

지역적 특수성 고려하여 장소성을 형성

물이라는 독특한 환경적 조건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장소성을 형성하였다. 도시계획 수법을 이용한 근대 계획 수법을 배제하고, 특이한 자연환경 속에 유기적으로 광장, 길, 운하 등을 밀접하게 연결하여 공간조직을 형성하여 다채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독창적인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강한 장소성에 매료되는 지역이다.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실천 모형

과거 불굴의 의지와 합리적인 정신으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삶의 터로는 불가능했던 지역을 현재의 수상도시로 건설하여, 역사·문화의 관광도시를 형성하였다. 아름다운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밀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거영역을 포기하고, 공공의 영역을 과감히 확보하여 지금의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베네치아만의 고민이 아닌 전 세계가 베네치아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었고, 엄청난 비용의 모세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였다.

5) 손세관, 베네치아 -동서가 공존하는 바다의 도시, 열화당, pp.280-281